

너무 춥다

지난 며칠은 정말 추웠다. 동부에서 입던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나가면 밖에 주차해 놓은 차에 얼음이 얼어 차문을 열수 없을 정도였다. 이곳 날씨도 많이 변하는 것 같다. 미국 북서부라고 하면 겨울에 비가 오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추웠는가? 나의 기억을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만 운전을 하면 자동차에서 히터가 나와서 곧 추었다는 것을 잊게 된다. 차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뜻하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춥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전염병으로 춥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떨릴 때가 많아졌다. 외롭고 우울하다는 말이 이제는 그리 크게 들리지 않는 세상에 산다. 그 이유는 전부가 우울하고 외롭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에 밝은 빛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 후면 달에 기지를 만든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앞으로 우주에 제임스 웹 만원경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주 더 멀리를 선명하게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소망이 생길까?

답은 전부 아니다. 춥고 떨리고 외롭고 우울한 것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차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되듯이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추운 겨울도 춥지 않고 우울한 것도 외로운 것도 그리고 두려운 것도 전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한정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자녀들은 죽으면 그 때부터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때에도 두꺼운 옷이 필요할까? 아닐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한 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은 너무 추워서 그리고 전염병이 때를 따라 심해서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곳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는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이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믿음으로는 천국시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한복음 14장 1-2절)라고 말씀하신다.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너무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이기려니 힘이 든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때가 가까우니 소망이 생긴다. 그 마음으로 살면 믿음이다. 힘을 내자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자 그것이 우리의 살길이다.